

# 폭력없는 學校 만들기 결의대회

## 이성적인 판단을 통한 학생관·역사관 재정립



동남고 학생들이 폭력없는 학교를 만들며 '학교폭력 추방' 구호를 외치고 있다.

동남고등학교(교장 조대행)는 지난 19일 오전 8시 동남고등학교 대

강당에서 독도수호 및 폭력없는 학교 만들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동남고는 교사와 학생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된 이번 결의대회는 최근 독도의 날 지정으로 인한 일본규탄과 학교폭력 등 일진회와 같은 폭력집단에 의해 피해 입는 학생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결의대회는 조대행 교장의 훈시와 학생대표인 김도연·한기훈 학생의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나라사랑 독도 지키기'에 대한 결의문 낭독, 독도 노래로 잘 알려진 '독도는 우리땅' 노래제창 등의 순

서로 진행됐다. 한편 조대행 교장은 훈사에서 독도 지키기에 대해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제정은 일본의 역사 왜곡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동남고 학생들은 학생의 신분에 맞게 역사의식을 되새기며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에 있어 "학내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며 "주위에 상황이 발생한다면 학생으로서 의연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 나의 초등학교 시절



김연수 학생명예기자

바로, 오늘이 6년 간을 함께 하였던 정경전 학교와 나의 반쪽인 친구들... 나를 보살핌 속에서 가르쳐 주신 선생님과의 헤어지는 날이다.

처음 학교에 입학하였을 때는 아무것도 모른 채 조그만 책가방을 메고 엄마 손을 잡고, 헤쳐가며 학교에 들어 왔지만...

지금은... 그렇게 마냥 어린아이처럼

좋지는 않다. 6년동안 함께 해온 가장 큰 벗이 나에게서 없어버린 것 같아서 왠지 오늘이라 슬픈 것 같다.

'커서 큰사람 되거라' 항상 말씀하시던 선생님 '우리다음에 커서 꼭 다시 만나자' 우정을 약속했던 친구의 그 말...

그 만큼 추억은 6년동안 학교 생활을 나에게 있어 큰 도움이 된 것 같다

dustn8523@hanmail.net

## 윤중성의 미국어 따라하기

92. 여름이 다 갔지?  
The summer is over isn't it?  
더썸머이스오버이즈닛?

\* 낮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요.  
The days are getting shorter and shorter.  
더데이시아게팅쇼터앤쇼터

93. 미스터토니는 어떻게 되었나요?  
What has got Mr.Tom?  
왓해스갓미스터'툼'?

\* 결국 6개월형을 받았어요.  
He got six months at last.  
히갓씩스만스스앳래스트



\*문의:윤중성 (017-723-4977) colyoon@nate.com

## 교사 탐구

일동중학교 체육부장 류기열

# 국내 최고 바이애슬론 선수 발굴 구슬땀

### 헌신적 제자사랑으로 일군 값진 성과 돋보여



"류기열 선생님과 함께 근무하는 것을 큰 영광이며 행복으로 생각합니다." 일동중학교 박경수 교장은 류기열 교사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일동중학교 류기열(38. 사진) 체육부장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류 교사가 일동중학교 바이애슬론부를 헌신적으로 육성하여 국내 최고 선수를 배출하였기 때문이다.

전남대학교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93년 전남 진도군 근대중학교에서 교직에 첫발을 디딘 류 교사가 일동중학교에 부임한 것은 2000년 3월 1일이다. 진도군 근대중학교에서 2년, 관인중학교에서 만 5년 동안 근무 후 일동중학교에 부임했다.

부임 후에 일동중학교 바이애슬론부를 맡은 류 교사는 투철한 교육관과 사명감을 갖고 헌신적인 지도를 한 결과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계기를 마련했다. 2003년 제84회 전국 동계체육대회에서 일동중학교의 바이애슬론부가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여 경기도가 종합우승을 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기도 했다.

류 교사는 또 2001년 학생부장으로서는 열악한 지역의 교육환경으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학생들의 탈선예방을 위해 주말에 취약지역을 순회지도 하고 요선도 학생지도에 남다른 열과 성을 다한 결과 생활지도 우수교사로 선정되어 교육감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꾸준한 상담 활동을 전개하여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결과 포천시의회 부의장과 총동문회로부터 감사패와 감사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류 교사는 특히 2001년 4월 14일 청소년들의 탈선 및 비행예방을 위한 캠페인활동을 학생, 교사, 학부모, 유관기관의 협조아래 펼쳐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의 청소년 선도도에 대한 실천의지를 고양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생활지도를 위해 도울 학생과 꾸준히 체험학습 활동(양로원 봉사활동, 고아원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을 다양하게 전개하여 학생들의 경료효친사상을 북돋아 주는 등 타의 귀감이 되고 있다.

평생 교직에 몸담아 최근 정년퇴임한 부친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류 교사는 "학생들보다 먼저 출근하라"는 부친의 가르침에 따라 지난 13년간의 교직생활을 통해 학생들보다 먼저 출근하고 있다.

특히 류 교사는 나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늘 학생들에게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교육에 나서고 있다.

쌀이 떨어져 고생하는 바이애슬론 선수 가정에 쌀을 전달하는가 하면 병원치료 등 바이애슬론 선수 가정의 크고 작은 일들을 직접 챙겨주는 일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류 교사의 이같은 노력은 결국, 선수들이 집안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라고 볼 수 있다.

지난 98년 선수 3명으로 창단한 일동중학교 바이애슬론부를 정상으로 이끌기 위한 류 교사의 노력은 집중훈련에서 절정을 이룬다. 현재 10명의 선수가 운동을 하고 있으며 방학 3개월 동안 집중훈련을 실시하는데 여름방학 1개월은 합숙훈련을 실시하고 겨울방학 2개월은 용평에서 동계훈련을 실시한다. 류 교사는 선수들을 이끌고 훈련장에서 선수들과 동거동락하며 기록을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훈련과정에서 류 교사는 학생들에게 무엇보다도 정

신교육에 치중한다. 전국에서 최고의 선수를 배출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선수들의 정신수양이 중요하다. "기량이 뛰어나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류 교사는 선수들을 집중 훈련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수들 본인의 불만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박경수 교장은 "류 교사는 답임을 맡아 학급운영에도 남다른 열정을 보인다"고 밝히고 "학급 환경정리를 맡아 환경정사를 못할 정도로 18개 학급의 정리정돈을 제대로 해 낼 수 있도록 성과를 가져오는 류 교사의 능력은 탁월하다"고 강조했다. 류 교사는 바이애슬론에 대해 비인기 동계스포츠로서 우리사회의 관심이 적극 요구되고 있으며 현재 일동중학교 바이애슬론부는 초등학교 선수들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중등부에서 선수를 발굴·육성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도 바이애슬론부를 신설하여 체계적인 바이애슬론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대학진학에 있어 전라남도 나주에 있는 동산대학까지 진학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대학진학시 운동을 포기하는 학생도 있다며 가까운 대진대학교에 바이애슬론부를 신설하여 일동중고 선수들이 대진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배려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류 교사는 학생들이 어렵게 선택한 길로서 강한 정신력을 가장 중요한 실력배양의 수단으로 삼는다. 훈련강도와 인성을 강하게 하여 선수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시킨다. "모질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엄격하고 강한 트레이닝을 통해 국내 최고의 선수가 탄생하는 것이다."

특히 동계훈련기간에는 땀을 손에 쥐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훈련에 임한다. 설 명절에도 오전에 차례만 지내고 곧바로 운동에 들어간다.

현재 일동중학교고등학교 선수중 국가대표 2명, 일동중학교 선수중 국가상비군 3명 등이 운동을 하고 있다.

류 교사는 바이애슬론부는 물론 일동중학교 체육부장으로서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에 따라 운동을 원할 경우 해당 종목에 계속 할 수 있도록 진로지도에도 남다른 열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성격이 우수한 학생이 운동을 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을 통해 공부와 병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서울대학교를 목표로 현재 교육중인 학생이 있다고 한다.

"운동보다는 공부야 편하다"고 강조하는 류 교사의 모습에서 일동중학교 바이애슬론부가 국내에서 최고의 선수를 배출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님을 읽을 수 있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아빠 어렸을 적에 (22)

# 자치기 놀이를 하다가

우리는 석재네 집 바깥마당에서 자치기를 하며 놀고 있었습니다. 자치기는 어른 엄지손가락 정도의 굵기의 나무를 약 50cm정도 자른 어미자와 약 15cm 정도의 새끼 자를 가지고 노는 삼 단계 놀이입니다. 첫 단계는 땅위에 구멍을 한 뼘 가량 파고 그 위에 작은 자를 열 십자처럼 올려놓고 큰 자로 힘껏 날려 상대방이 받은 50점을 점수를 줍니다. 만약 받지 못하면 큰 자를 구멍 위에 가로놓고 작은 자로 맞추면 아웃이 되고 못 맞추면 2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는 옆치기로 큰 자로 작은 자를 쳐서 날려보내면 되는데 이때에도 상대방이 받으면 100점을 주고 못 받으면 구멍 가까이로 솔래편이 던지는데 공격 편은 큰 자로 작은 자를 쳐서 날려보내면 그 거리를 작은 자로 재어 점수로 환산합니다. 작은 자로 일일이 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우리들은 열자 자

나 스무 자 자를 미리 준비하여 놓았습니다. 3단계는 토끼리는 단계로 구멍에다 일자로 올려놓고 큰 자로 튕겨서 쳐내는 방식인데, 이때에도 상대방이 받으면 300점을 주는 놀이입니다. 어른들은 새끼자의 날아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받기가 곤란하고 눈을 다칠 수 있으므로 위험하며 극구 말리는 놀이입니다. 자치기는 가을 놀이입니다. 무에 물기가 빠지거나 어른들이 집에 빨나무를 해다 놓으면 그 중에서 골라 만듭니다. 장수도 땅의 면이 평평해야 하므로 탈곡을 위해 마당에 짚을 틀이고 난 후 반질반질 굳어진 10월말쯤이 자치기 놀이를 하기에 적합합니다. 자치기를 하며 놀고 있을 때면 "옛날 돈이나 채권 삽니다." 어디에선가 옛날 돈 장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치기를 하다 보니 아버지 한 분이 허름하고 닳은 누운 가죽

가방을 메고 지나가는 것이지 됩니까? 그 아저씨는 우리의 옆을 지나가면서 또다시 외쳤습니다. "옛날 돈이나 채권 삽니다." 나는 놀이를 멈추고 아저씨를 불러 세웠습니다. "아저씨, 우리 집에 옛날 돈 있는데 사실래요?" 눈이 휘둥그레지며 내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져와 보여주세요." 아저씨는 별 관심이 없다는 투로 대답하였습니다. "아저씨! 잠깐만요." 내가 짐으로 뛰어가려니 아이들이 불렀습니다. "야, 너 할 차례야. 2인인데 안 해?" 놀던 아이들이 입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응, 잠깐만... 나, 집에 좀 갔다 와서..." 나는 못 들은 척 짚 껌 씹음으로 달려가 엄마가 장롱 깊이 감추어 둔 상경통보 여러 개와 동국통보 한 개, 그리고 명치라고 쓰인 은돈 여러 개를 가지고 달려왔지요. "아저씨, 여기 있어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내가 말했다. "에이, 임마 이거 못 쓰는 돈이야! 개도 안 먹는 아주 싹 돈이야! 네가 놀다 가져온 성의를 생각해선 양은 짓가락 두 매를 줄테니 바꾸려면 바꾸고, 싫으면 네

## 김순진의 연재 수필



김순진

시인, 소설가, 수필가  
http://cafe.naver.com/yob51  
011-9123-4422

맘대로 해!"

그 아저씨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내가 가져온 옛날돈은 아주 싸구려라며 통명스럽게 굴었습니다.

"에이... 정말 싹 돈인 모양이네..."

잠시 생각에 잠긴 나는 양은 짓가락과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좋아요, 그냥 짓가락으로 바꾸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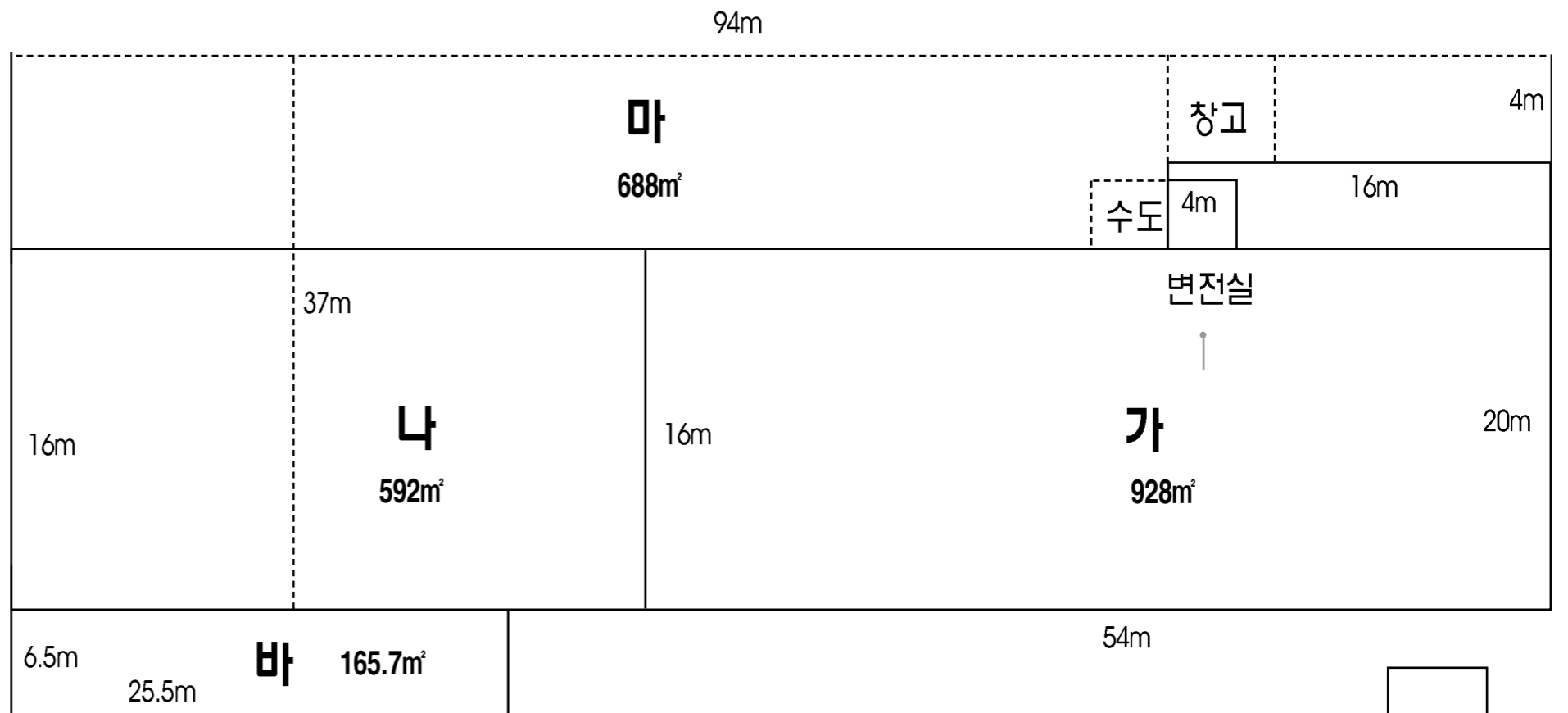
옛날돈 장수는 내게 양은 짓가락 두 매를 손에 들려주고 도망치듯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계속)

# 공장 임대

- 위치 : 금현로타리(일명 고인돌 로타리)
- 대지 : 약 3000평
- 건평 : 약 750평 (별도 건물 30평)
- 임대조건 : 입주자와 합의 전 · 월세 가능
- 전기 : 350KW
- 쾌적한 환경에 공장등록 필하고 주차 및 아적할 수 있음
- 주소 :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322-3
- 전화 : 031)541-6961~4

H.P.010-7577-9094 Mr.Lee(01)



- 가) 16×54+16×4 ≒ 928㎡
- 나) 16×37 ≒ 592㎡
- 다) 4×2.4 ≒ 9.6㎡
- 라) 3×16 ≒ 48㎡
- 마) 94×8-16×4 ≒ 688㎡
- 바) 6.5×25.5 ≒ 165.7㎡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322-3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322-4

TOTAL (735.5평) ≒ 2431.3㎡

창문 중문 크문 (바닥부터)

